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기술주 랠리로 나스닥 2만선 첫 돌파

- 나스닥 2만선 돌파하며 1.8% 상승, S&P500 0.8% 상승, 다우지수 0.2% 하락
- CPI 상승률 예상치 부합, 12월 금리 인하 기대 유지
- 테슬라, 메타, 아마존, 브로드컴 등 기술주 상승, 브로드컴 6.6% 급등

Summary

미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 2만선을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7% 상승하며 20,034.89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82% 오른 6,084.19를 기록함. 그러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22% 하락하여 44,148.56에 마감함.

이번 상승세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한 2.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낸 가운데,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이루어짐. 주요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를 견인함.

테슬라는 5.93% 급등하며 424.77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메타와 아마존도 각각 2% 넘게 상승함. 브로드컴은 애플에 인공지능(AI)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6.63% 급등함. 한편, 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크게 올랐고, 달러 인덱스도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하여 106.69를 기록함.

이러한 경제적 배경 속에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인하 여부와 향후 금리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뉴욕증시는 기술주 랠리와 소비자물가지수 안정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다수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됨. (다우 -0.22%, 나스닥 +1.77%, S&P500 +0.82%, 러셀2000 +0.69%)

특징종목

알파벳(+5.5%)은 신규 AI 어시스턴트 '제미니'의 안드로이드 및 iOS용 구글 워크스페이스 확장과 런던 AI 캠퍼스 개설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함. 테슬라(+5.9%) 역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v13 출시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주가가 크게 오름. 브로드컴(+6.6%)은 애플과의 AI 서버 칩 개발 협력 발표로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높아지며 주가가 급등함. 아마존(+2.3%)은 생성적 AI 성능 향상을 지원하는 Amazon Bedrock 출시로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를 키움.

반면, 제너럴 모터스(-1.3%)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50억 달러 손실 예고로 주가가 하락 중. 애플(-0.5%)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업데이트 관련 소송으로, 엑슨모빌(-0.7%)은 에너지 부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엔비디아(+3.1%)는 AI 칩 분야 선도적 지위 유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반영되어 상승함. 이러한 변동 요인들은 각 기업들의 전략적 결정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보여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20분, KST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7%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음. 이는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로 인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며,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측됨. 특히 영국(4.32%), 독일(2.14%), 일본(1.07%) 등 주요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흥국의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DXY)가 106.68로 소폭 상승하였음. 이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유로/달러 환율은 1.05로 소폭 하락하였고, 엔/달러는 152.56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중임.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 하루 동안 2.47% 상승한 70.28달러로 마감했음. 이는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이 개선되고 러시아 및 중국 등의 원유 생산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결과임. 천연가스는 강력한 수요 속에서 6.65% 상승하였고, 금값은 0.78% 오른 2717.03달러를 기록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했음. 이러한 배경 하에 금속과 에너지 등 다양한 상품 시장의 흐름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S&P500 (SPY)	+0.8	배당성장 (SCHD)	-0.6
S&P500 동일가중 (RSP)	+0.1	미 국채 (AGG)	-0.2
나스닥100 (QQQ)	+1.8	미 장기 국채3X (TMF)	-2.8
다우 (DIA)	-0.3	매그니피센트 7 (MAGS)	+3.0
대형성장 (MGK)	+1.7	인공지능 (AIQ)	+1.4
소형주 (IWM)	+0.5	메타버스 (METV)	+2.3
인도 (INDA)	+0.4	클라우드 (CLOU)	+1.5
중국 (FXI)	-0.9	2차 전지 (LIT)	+0.5
반도체 (SOXX)	+2.5	로봇 (BOTZ)	+0.3
부동산/리츠 (VNQ)	-0.2	방위산업 (SHLD)	+0.3
헬스케어 (XLV)	-1.4	스마트 그리드 (GRID)	+1.2
항공 (JETS)	+1.8	미국 인프라 (PAVE)	+0.5
소프트웨어 (IGV)	+1.6	친환경 (ICLN)	0.0
바이오테크 (XBI)	-0.5	우라늄 (URA)	+0.4

US Sector Index				
S&P 500	종가	D-1(%)	D-5(%)	D-20(%)
커뮤니케이션	358.8	+3.1	+5.3	+7.6
경기소비재	1,928.8	+2.0	+5.3	+8.8
IT	4,700.4	+1.5	-0.3	+2.5
금융	826.3	+0.3	-1.0	-0.3
에너지	685.6	+0.0	-2.0	-4.9
산업재	1,169.9	-0.2	-2.8	-3.3
부동산	269.3	-0.2	-2.1	-1.3
소재	568.2	-0.4	-3.1	-3.8
유틸리티	391.9	-0.6	-3.6	-2.7
필수소비재	888.2	-0.6	-0.7	+2.5
헬스케어	1,652.8	-1.3	-3.2	-4.9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및 지수	종가	D-1(%)	D-5(%)
WTI	70.3	+2.5	+2.5	달러인덱스	106.66	+0.3	+0.3
Brent	73.5	+1.9	+1.7	유로/달러	1.0496	-0.3	-0.1
미국 천연가스	3.4	+6.1	+10.3	달러/엔	152.47	+0.3	+1.3
석탄	112.4	+0.0	-2.5	달러/역외위안	7.2799	+0.3	+0.0
금	2,756.7	+1.3	+2.9	달러/원(NDF)	1,427.8	-0.4	+1.1
은	32.6	-0.1	-1.5	비트코인	101,619	+4.9	+1.1
구리	9,177.0	-0.4	+1.0	이더리움	3,832	+5.2	-4.9
알루미늄	3,119.0	-0.5	+0.6	나스닥 크립토	5,352	+4.9	+1.9
밀	563.3	+0.1	+2.6	CRB 상품 (12/10)	348.4	+0.5	+1.9
대두	1,002.8	+0.2	+1.3	LME 금속 (12/10)	4,060	-0.1	+0.3
소고기	191.4	+1.3	+1.7	발틱 건화물 운임	1,156	-4.3	-4.7
돼지고기	84.4	-0.2	-2.3	컨테이너 운임(주간)	3,533	+320	-1,24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주요 스프레드	종가(%)	D-1(bp)	D-5(bp)
미국	4.22	+2.3	-0.0	미 국채 10-2년	7.9	+0.5	+3.6
한국	2.64	-3.2	-7.2	미-한 국채 10년	158.4	+5.5	+16.9
일본	1.07	+1.8	-1.0	미-일 국채 10년	315.3	+0.5	+3.9
독일	2.12	+0.1	+6.8	프-독 국채 10년	75.8	+0.6	-7.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컨테이너 운임(주간)은 1M, 3M 대비 등락폭 기준. 괄호 안은 기준 날짜.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